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신채이	직 급	5급
훈 련 국	싱가포르	훈련기간	2022.7.-2024.5.
훈련기관	난양기술대학교	보고서 매수	108매
훈련과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남방 국가의 지재권 환경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남방 국가의 지재권 환경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내용요약	<p>1.서론</p> <p>6억 8천 8백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도의 경제 발전 궤적을 보여온 동남아시아의 경제 지형에서 지식 재산권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 <p>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지재권 환경을 디지털 전환 국면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의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이전 촉진, 해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현지 혁신 촉진을 위해 현지 지재권 체계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한다.</p> <p>낮은 지재권 인식 수준 및 효율적인 지재권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한국에 혁신과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혁신생태계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양측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남아시아의 지재권 환경과 혁신이 한국에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p>		

2. 문헌 검토

글로벌 가치 사슬(GVCs), 외국인 직접 투자(FDI), 지식 재산권(IPR) 및 그들의 상호 관계가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2.1 GVCs와 FDI

글로벌 가치 사슬(GVCs) 개념은 생산 단계가 다른 국가에 걸쳐 퍼져 있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관련 연구들은 FDI의 유입과 GVC 참여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보여주었으며, GDP에 대한 FDI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GVC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UNCTAD의 187개국에 대한 연구는 FDI 내부 유입량 증가와 GVC 참여 증가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했다. 유사하게, Van der Marel은 GDP per capita가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으며, 시장 크기, FDI 제한, 규제 장벽이 후방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Kowalski et al. 및 Buelens와 Tirpak의 연구는 구조적 요인, 무역 정책 개혁 및 외국 투자자들이 국가의 GVC 참여 및 수출 구조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2.2 IPRs와 GVC

혁신과 지식 창출, 지식 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지재산권 정책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IPR을 글로벌 무역 모델, 특히 북-남 무역 맥락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지재산권을 향한 상충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p>내용요약</p>	<p>지재권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이지만, 지재권 보호의 강도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아웃소싱 및 기업의 생산관리에 대한 내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p> <p>2.3 IPR과 FDI</p> <p>지식 재산 보호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관계는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강력한 IPR 체제가 FDI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었다. 또한, IPR 시스템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가 간 이질성이 존재하며, IPR이 합작 투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 생산의 현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Glauco 등의 연구는 국가 IPR 보호가 FDI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범위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p> <p>2.4 방법론적 고려 사항 및 연구 격차</p> <p>광범위한 문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격차와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경제 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에 대하여 더 세분화된 지역별 분석이 필요하다. IP Index 등 IPR 보호 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측정 편향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더 객관적인 측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p> <p>요약하면, GVCs, FDI 및 IPR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글로벌 경제 상호 작용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각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역학관계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p>
-------------	--

<p>내용요약</p>	<p>3. 아세안에서의 지식 재산권의 역할</p> <p>3.1 혁신 유인과 사회 복지의 균형</p> <p>지식 재산(IP)과 지식 재산권(IPR)은 디지털 시대에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이들은 창작자와 발명가에게 일시적인 독점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IP정책은 IP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과도하게 엄격하고 강력한 IPR은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약한 보호는 모방 제품의 확산을 초래해 원창작자의 창조적 유인을 저해하고 추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효과적인 IPR 제도는 단기적 시장 독점과 장기적 사회적 이익 사이의 절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견고한 IPR 기준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며, 특히 아세안 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p> <p>3.2 글로벌 무역 및 경제에서의 IPR</p> <p>IPR은 산업의 세분화·정밀화, 혁신 및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특히, GVC의 보편화로 인한 생산 과정의 분업화와 해외 이전은 국제적인 기술 이전 및 현지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IP 체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IPR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확산을 촉진하여 기술이 풍부한 국가와 기술이 부족한 국가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IPR 보호는 국제 무역 협상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 있으며, 보호적이고 유연한 IPR 체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p>
-------------	---

<p>내용요약</p>	<p>3.3 GVC에서의 다국적 기업: 규제 및 가치 분배</p> <p>GVC의 등장은 글로벌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종종 생산의 노동 집약적 부분을 노동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한다. GVC 내에서 가치 분배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R&D 및 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조립 단계에서는 가장 적은 가치가 분배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GVC 내 가치 분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 IP 제도를 협상력과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p> <p>3.4 글로벌 IPR 환경: 협약 및 경제</p> <p>1994년부터 국가 간 IP 보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 지식 재산권 관련 무역 협정(TRIPS)은 국제 지식 재산권 (IP) 법의 핵심이다. TRIPS는 IP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고 기술 이전 및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GVC의 확산은 더 높은 수준의 IP 기준과 집행을 요구하며, 이는 종종 선진 경제가 주도하는 양자 및 지역 협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p> <p>3.5 아세안: 'Flying-Geese'에서 GVC로</p> <p>1980년대 이후 집약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아세안의 진화는 이 지역을 GVC의 중요한 허브로 정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R 보호는 많은 아세안 회원국에게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IP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동 지역의 IPR 보호분야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아세안은 CPTPP 및 RCEP과 같은 협정의 가입을 통해 강화된 IPR 집행을 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p>
-------------	---

<p>내용요약</p>	<p>3.6 아세안에서 IPR 강화: 디지털 경제 및 GVC</p> <p>디지털화와 GVC가 지배하는 현대 경제에서 IP의 중요성은 급증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IPR 보호를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GVC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세안의 다양한 지재권 협력과 국제 협정의 준수는 IPR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강화된 IPR 보호는 아세안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제구조에의 원활한 편입을 유도한다. 혁신 전략 및 IPR 정책을 반영한 교육 및 정책은 IP 관련 지식을 보유한 인적 자본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p> <p>4. 아세안의 지식 재산권 협력</p> <p>4.1 개요</p> <p>지난 40년 동안 지식 재산권(IP)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화폐가 된 시대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했다. 지식 재산권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적이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이 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효과적인 지식 재산권 관리는 비즈니스 수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가치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높인다.</p> <p>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의 지식 재산권은 국가 및 지역 사회 경제 발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식 재산권 협력은 1995년 아세안 지식 재산권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로 시작됐다. 이 협정은 지식 재산권의 관리, 집행 및 보호를 포함하여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였다.</p>
-------------	--

<p>내용요약</p>	<p>4.2 다양한 이니셔티브</p> <p>아세안 지식 재산권 협력 실무 그룹(AWGIPC)은 다양한 지식 재산권 기관, 개발 파트너 및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세안 지식 재산권 행동 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시행한다.</p> <p>4.3 아세안 IPR 계획 및 실행</p> <p>AWGIPC는 대학, 기업, 대화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세안 지식 재산권 행동 계획(AIPRAP)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 재산권이 아세안의 경제 통합에 중요하기 때문에 AIPRAP 2025의 실행은 최우선 과제다. 1996년에 설립된 AWGIPC는 지역 전반에 걸친 지식 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부문별 그룹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 재산권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p> <p>4.4 한계 및 함의</p> <p>4.4.1 한계</p> <p>아세안 지역이 혁신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중대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p>또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는 R&D 자원의 분배와 활용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는 국가 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혁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p>
-------------	--

내용요약	<p>4.4.2 정책 함의</p> <p>혁신 효율성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세밀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원과 연구 인프라와 같은 전통적인 조치를 넘어서 혁신 매트릭스의 더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해야 한다. R&D 투자를 증가시키고 R&D 혁신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보다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 재산권 체계를 강화하며 혁신생태계에의 민간 부문 참여를 더욱 장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아세안 지역 내 국가 혁신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회원국의 집단적 잠재력을 최적화하는 일관되고 시너지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p> <p>5. 동남아시아에서의 디지털 경제와 IP 진화</p> <p>5.1 싱가포르</p> <p>5.1.1 개요</p> <p>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지식 재산권 발전의 중요 사례로, 강력한 IP 체계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론을 잘 반영한다. 독립 이후 고소득 국가로 변모하며, TRIPS 기준을 능가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p> <p>5.1.2 IPR 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1989 (산업화 경제로의 전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IP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반 고기술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조되기 시작했다. ·1990-1999 (글로벌화 경제로의 전환):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및 제조업 강화와 기술 역량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특허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00년 이후 (지식 기반 경제로의 진화):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싱가포르는 연구 집약적인 제조업과 디지털 미디어 확장에 주력하며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다.
------	--

<p>내용요약</p>	<p>5.1.3 IP 집행 강화 IP 집행을 강화하고, IP 법원을 설립하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IP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p> <p>5.1.4 디지털 경제 2022년,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는 GDP의 17% 이상을 차지하며, 정보 통신 부문과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되었다.</p> <p>5.1.5 성공 요인 싱가포르는 효과적인 IP 보호 체계와 교육 시스템, 프로 비즈니스 정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혁신을 촉진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p> <p>5.2 말레이시아</p> <p>5.2.1 개요 말레이시아는 지식 재산권 발전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실행, 포괄적인 집행 체계 구축, 국제 IP 협약 및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통해 창의성,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p> <p>5.2.2 IPR 진화 말레이시아의 지식 재산권 보호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871년 발명 조례를 시작으로 점차 발전하여 현대에는 TRIPS 협약에 부합하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p> <p>5.2.3 IP 집행 강화 국내무역소비자부(KPDN),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 등 여러 기관을 통해 IP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p>
-------------	--

<p>내용요약</p>	<p>5.2.4 국제 표준 및 협약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P 보호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CPTPP와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글로벌 IP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p> <p>5.2.5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4차 산업정책인 'Industry4WRD'를 통해 제조업 및 연관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다각화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이점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5.3 인도네시아</p> <p>5.3.1 개요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 사항과 국제규범 IP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p> <p>5.3.2 IPR 진화 인도네시아의 IP 보호는 식민지 시대의 네덜란드 법에서 기원하며,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발전해 왔다. 독립 이후 IP 법체계는 국제 표준과의 일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p> <p>5.3.3 정책 환경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법적 전통을 수용한 복합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 시대 이후 법 개혁과 반부패 노력을 통해 법적 투명성과 성능을 개선해 왔다.</p> <p>5.3.4 IP 집행 강화 법무인권부 내 지식재산권 총국이 IP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조 경제 부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IP 보호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BEKRAF를 설립하였다.</p>
-------------	---

<p>내용요약</p>	<p>5.3.5 디지털 창조 경제 인도네시아의 창조 경제는 혁신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동화, 디지털화, 직원 교육 및 업스킬링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p> <p>5.4 베트남</p> <p>5.4.1 개요 베트남은 GVCs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지식 재산권(IP)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혁신 촉진과 국제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5.4.2 IPR 진화 베트남의 IP 법제는 1980년대 초기 규정부터 시작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CPTPP와 EV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p> <p>5.4.3 집행 발전 국가지식재산국(NOIP)과 베트남 저작권국(COV)은 베트남의 IP 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IP 보호를 보장한다.</p> <p>5.4.4 수출 동향과 IP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중소기업(SME)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IP 법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내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p> <p>6. 결론</p> <p>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 사슬(GVCs) 참여 및 지재권 체계 발전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하고, 이 지역을 한국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및 IP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지대로 제안한다.</p>
-------------	--

<p>내용요약</p>	<p>동남아시아의 신속한 디지털화와 GVCs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상호 윈윈할 성장, 혁신 및 협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선진 IP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 지역의 IP 체계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하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세울 때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전략적 노력이 될 것이다.</p> <p>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는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디지털화로 인한 모방품의 신속한 확산과 브랜드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사용 등 우리 기업들이 겪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p> <p>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단속 이니셔티브, IP 인식 제고 캠페인, 한국 기업 지원 및 인증 강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p> <p>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와 같은 조치는 긍정적인 출발점이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재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히 지재권 침해가 잦은 지역에 '기술 경찰' 같은 전문 인력을 현지 주재관으로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실시간 대응과 현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지화된 접근 방식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p> <p>한편,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이 진행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또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통적인 단속 방식에도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지재권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사례가 오히려</p>
-------------	--

<p>내용요약</p>	<p>크게 감소했다('04년 316건→'22년 61건). 이는 전통적인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단속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p> <p>한국은 기술 발전과 강력한 IP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집행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단속의 주요 대상은 주로 해외 고급 브랜드의 모조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단속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과 같은 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p> <p>국내 예산을 활용하는 단속 활동이 주로 해외 고급 브랜드의 모조품에 집중될 경우, 이는 국내 기업의 이익보다 글로벌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지재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과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단속 체계의 전략적 개선이 요구된다.</p> <p>지재권 침해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단속 전략을 개발하고, 해외 단속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선진 IP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p> <p>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추세는 '기술 안보'이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65/2023/ND-CP호 법령을 통해 급속한 기술 발전과 증가하는 안보 요구에 대응하여 IP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 법령은 특허 신청에 대한 안보 영향 평가를 국방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산업 기술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기술에 대한 해외 출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안보의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기술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산업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p>
-------------	---

내용요약

한국도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법적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특허법 제41조는 국방 기술에 국한되어 있어, 핵심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하기 어렵다. 베트남의 최근 법령 변경과 일본의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P 보호 전략 수립시 중요한 점은, IP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P 보호 전략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산업 구조, 경쟁력, 성장 잠재력 등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IP 보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 이는 지재권 보호가 단순히 법적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IP 보호 전략은 한국의 경제적 맥락과 목표에 맞춰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문화와 기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을 한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지, 아니면 기업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전략시킬지는 현재 우리 지재권 정책의 노력에 달려 있다.